

## NBIC기술 융합과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학적 지평

\*김동윤

건국대학교

\*aixprce@naver.com

## The Converging of NBIC Technology and Posthumanism Discourses

\*Kim, Dong-Yoon

KonKuk University

## 요약

최근 포스트휴머니즘은 오늘날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학문 공동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NBIC기술의 융합으로 사유와 논의가 가능해진 개념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존의 휴머니즘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서구 휴머니즘 전통의 핵심은 17세기 합리주의 정신에 이르러 하나의 절정을 이룬다. 논자는 오늘날 뜨거운 화두인 포스트휴먼 논의의 발단은 서구 모더니티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기술의 융합적 발전이 인간,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NBIC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융합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것을 트랜스휴머니즘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제 인류문명은 트랜스휴머니즘을 넘어서 각종 보철술이 인간의 몸을 대신하는 포스트휴먼으로 진화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기존의 근대적 재현과 표상, 상징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미셸 푸코는 '이를 두고 '근대적 인간의 소멸'을 예견한 바 있다. (1)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급진적이고도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기술혁명' 시대에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른바 인간학적 지평에 대한 논의가 긴급하다고 판단한다.

최근 포스트휴머니즘은 오늘날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학문 공동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포스트휴머니즘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NBIC(나노, 바이오 유전체,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으로 사유와 논의가 가능해진 개념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은 기존의 휴머니즘 그리고 트랜스 휴머니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서구 휴머니즘 전통의 핵심은 17세기 합리주의 정신에 이르러 하나의 절정을 이룬다. 논자는 오늘날 뜨거운 화두인 포스트휴먼 논의의 발단은 서구 모더니티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모더니티의 시작은 데카르트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는 몸과 감각을 배제한 사유 이성 의식 만을 염두에 둔 지극히 이성론적 합리주의적 발상이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과학기술은 물론 서구 근대 문명 전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오늘날 데카르트 코기토의 극명한 과학기술의 결과가 인공지능이다. NBIC기술 융합의 대표적인 경우가 인공지능이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트랜스휴머니즘, 더 나아가 포스트휴머니즘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은 MIT의 학자 노베르트 비네에 의해 제기되었다.(2) 인간 뇌와 몸을 사이버네틱스와 연결시킬 가능성으로 인해 포스트휴먼 논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보아 포스트휴먼은 트랜스휴먼의 다음 단계로서 인간의 몸이 필요하지 않는 단계, 즉 인간의 생물학적 동물적인 것이 인간에게서 사라지는 단계로 말해진다. 노베르트 비네나 폰 노이만과 같

은 사이버네틱스 과학자들은 인간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인간과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11950년대 독일의 미디어 철학자 쿤터 안더스는 '초 문지방(Supralimainary)이라는 개념으로 윤리와 인간학적 통찰이 결여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비판하였다.(3) 즉 'Supralimainary'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 가면 인간은 더 이상 기술에 대해 사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적정선에서 기술을 제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포스트휴먼의 가능성과 새로운 상상력의 지평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논의와 상상력은 오늘날 북미와 서유럽에서 기술미디어학, 커뮤니케이션 정보학, 인문과학, 비주얼 시각 문화, 사이버 문화 등 거의 모든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광범위하면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창작되고 있다. (4)

본 논문의 논의의 핵심은 기술의 융합적 발전이 인간, 인간의 본질, 인간의 정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NBIC(Nano, Biogenetics, Information, Cognitive science)로 대표되는 기술융합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 몸과 역능의 향상 증강 강화를 목표로하는 트랜스휴머니즘 운동이 좋은 예이다.(5) 이제 인류문명은 트랜스휴머니즘을 넘어서 각종 보철술이 인간의 몸을 대신하는 (좁은 의미에서 생물학적 차

원이 필요없는) 포스트휴먼으로 진화 가능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물론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완전히 인간이 생물학적 차원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재현과 표상, 상징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각종 SF 영화 영상 콘텐츠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 포스트휴먼의 서사와 상상력으로 가득하다. 인간은 이제 근대가 구축한 주체적 위상을 상실하고 거대한 시스템의 부호나 기호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미디어 학자 장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개념을 바탕으로 제작된 워쇼스키 감독의 '메트릭스' 연작에서 트랜스휴먼을 넘어 포스트휴먼으로 향하는 그 가능성을 엿본 바 있다. 근자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화 [그녀]는 인간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인공지능 로봇과의 '진정한 소통'과 감정이입의 가능성마저 제기된 상황이다. 이제 인간이란,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NBIC기술융합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 등은 우리 사회가 질문해야 할 기술 사회적 혁명의 진정한 문제의식이다. 우리의 입장은 인간과 과학기술이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하고, 인간 안에 이미 많은 기술이 스며들었으므로 인간과 기술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인간이 생물학적 동물적 차원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 적어도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에서는 -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흔히 트랜스휴머니즘 학자들이 말하듯이 생물학적 차원과 결별한 기계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주장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스트휴먼(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휴머니즘과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휴머니즘의 지적 담론적 지평(에피스테메)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이미 후기구조주의자 미셸 푸코는 '말과 사물'의 말미에서 바닷가의 모래 한 알처럼 근대적 인간의 소멸을 말함으로서 근대적 인간의 소멸과 새로운 '인간'의 출현가능성을 예견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근대적 인간의 소멸 이후 나타날 새로운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문명사적 결정적인 전환의 국면에서 다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른바 인간학적 지평에서 고찰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판단한다.

#### 참고문헌

- (1) Michel Foucault, *The Order of Things(Les mots et les choses -Une archéologie des sciences humaines)* 1990 Gallimard Baptiste Jacomino, *Apprendre à philosopher avec Foucault*, Ellipses, 2014.
- (2) Nobert Wiener, *Cybernetics, Second Edition: or the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The MIT Press: second edition edition MIT Press, 1965.
- (3) Elaine Després, Hélène Machinal, *Posthumains : frontières, évolutions, hybridités*, Presses Universitaires Rennes, 2014.
- (4) Cary Wolfe, *What Is Posthumanism? (Posthumanities)*, Univ Of Minnesota Press (November 30, 2013); Katherine Hayles, *How We Beca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Donna J. Haraway, *When Species Meet (Posthumanities)* Univ Of Minnesota Press, 2007.
- (5) Nick Bostrom,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Oxford, 2014. ; Allen E. Buchanan, *Beyond*

*Human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Allen Buchanan, Dan W. Brock, Norman Daniels, Daniel Wikler, *From Chance to Choice: Genetics and Jus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Luc Ferry, *La Révolution transhumaniste - Comment la technomédecine et l'uberisation du monde vont bouleverser nos vies*, Plon, 2016; Gilbert Hottois, *Transhumanisme est-il un humanisme?* e-book, 2014; Gilbert Hottois, Jean-Noël Missa (Direction), *Encyclopédie du trans/posthumanisme, - L'humain et ses préfixes*, 2015; Béatrice JOUSSET-COUTURIER, *Le Transhumanisme*, Eyrolles, 2015; Laurent Alexandre, *La mort de la mort*, JC Lattès, 2011; Laurent Alexandre et Jean-Michel Besnier, *Les Robots font-ils l'amour? - le transhumanisme en 12 questions*, Dunod, 2016.